

[1] 거룩한 부활절부터 성신강림절까지 형제들은 제6시에 식사를 하고, 저녁에도 식사를 할 것이다.

[2] 그러나 성신강림절부터 온 여름철 동안은, 만일 수도승들이 밭의 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심한 여름 더위로 괴로울 정도가 아니면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제9시까지 금식하고, [3] 나머지 날들에는 제6시에 점심식사를 할 것이다. [4] 만일 밭에 일이 있거나 혹은 여름 더위가 지나치게 (심하거든) 제6시에 점심식사하기를 계속할 것이며, 이것은 아빠스가 배려할 일이다. [5] 이처럼 모든 일을 조절하고 배치하여,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형제들이 정당한 불평 없이 일하도록 할 것이다.

[6] 9월 13일부터 사순절 시작까지는 항상 제9시에 식사할 것이다.

[7] 부활절까지 사순절 동안에는 저녁 때 식사할 것이다. [8] 그러나 식사 때 등불이 필요하지 않도록 <저녁기도>를 바쳐, 모든 일을 햇빛이 있는 동안에 마치도록 할 것이다. [9] 그러나 모든 계절에도, 저녁식사이든 (한 끼) 식사이든 이렇게 조절하여 모든 일을 햇빛이 있을 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.